



보 도 자 료

일 시 : 2007. 3. 21(수)

발 신 :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위원회

한국 교육의 미래와 서울대학교의 비전

21세기가 개막된 이래 세계 국가들은 일찍이 인류사회가 경험하지 못한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직면했다. 세계의 학자들이 정보화사회, 네트워크사회, 첨단과학기술사회로 통칭하는 이 변화의 물결이 지구촌의 모든 영역에서 ‘대변혁’을 추구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세계의 국가들은 국가 운영의 방식은 물론 기업과 사회, 가족과 공동체, 직업과 교육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구조 변혁을 모색하고 있다.

향후 20년 동안 미래의 대학세계는 매우 급격한 판도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간 무한경쟁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마치 산업부문에서 목격하듯 대학세계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지식창출을 주도하는 십여개의 초 일류대학군이 대학교육 전반을 지배할 가능성이 많다. 서울대학교는 이 소수의 주도적인 대학군의 일원으로 지식창출대학으로서 세계의 우수대학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학문 역량을 갖추어 나가고자 한다.

이런 관점에서, 서울대학교는 ‘아시아의 교육허브’가 될 것을 일차적 목표로 설정하고, 나아가서 ‘세계의 교육 허브’이자 교육, 연구역량이 세계 초일류 대학군에 속하는 대학으로 발전하는 것을 장기적 목표로 설정한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서울대학교는 연구중심대학”(Research University)의 심화발전과 “다면적 융합대학”(Multiversity)으로의 도약을 서울대학교의 장기 비전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중심대학이 교육과 연구역량의 제고를 통하여 지식

정보사회와 첨단과학기술사회를 선도하는 기관이라면, 다면적 융합대학은 글로벌화와 다원화의 추세에 놓인 자율적 사회 조직들과 인재들을 긴밀한 지식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지식생산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새로운 유형의 조직이다.

장기 비전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수행해 나가고자 한다.

■ **세계화된 21세기 형 인재를 육성한다.**

서울대는 변화무쌍하고 치열한 경쟁의 시대가 요구하는 국제적 리더십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 철저한 기본교육과 함께 영어 이외에 제 2 외국어 능력을 갖추도록 할 것이다. 개인별 필요에 따른 자유전공, 다 학제적 복합전공 등 유연한 전공교육 체제를 도입할 것이며 학문적 능력과 함께 실천성과 헌신성을 겸비한 리더십 교육에도 역점을 둘 것이다.

■ **학문적, 지리적 경계를 뛰어 넘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한다.**

20세기가 학문의 세분화와 전문화가 진행된 시대였다고 한다면, 21세기는 학문간 융합이 지배적인 추세로 자리잡을 것이다. 학문간의 경계를 넘어 융합을 통해 새로운 지식영역을 끝없이 창출하고 학문세계의 복합적 성격을 강화하고자 한다.

국내외의 지리적 경계를 넘어 서울대학교를 한국의 대학이자 동시에 세계 대학의 구성원으로 만들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지역적 경계를 뛰어넘는 캠퍼스를 구축하고 소속학교의 경계를 넘어 국내외 교수간의 교환강의체제가 확산되도록 한다.

■ **교육방식의 획기적인 변화를 추진한다**

대량생산방식 혹은 집체식 교육을 지양하고 교수와 학생간의 면대면 맞춤형 교육, 또는 쌍방향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육과 연구형태를 정착시킬 것이다. 교수방식의 일대 변혁 및 첨단 정보화 기기를 활용한 교육인프라 구축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 **다기화된 교육수요를 충족시킨다.**

미래의 대학은 다기화된 사회적 교육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유연성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우수한 인재를 배양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성원들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의 역할과 함께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유연성도 갖추어 나갈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제를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와 함께 ‘대학자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의 희망을 실천하는 국립대학이면서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규제만을 적용받는 ‘자율적 국립대학’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학구성원의 분골쇄신하는 자기규제 및 능동적인 재정확충 노력과 함께 국가 사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전제된 법인화의 모색은 우리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자율성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또한 온 국민의 관심사인 입시제도의 선진화를 위해서도 대학은 자율권을 가져야 한다. 서울대학교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유형의 법인화를 추구하고 동시에, 한국 교육제도의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입시제도의 창안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

1. 미래 인재 육성

- 무한 경쟁, 무 경계 환경의 대학교육에서 세계 10위권의 교육 수월성 확보
- 다학제적 복합전공, 자유전공 및 자기맞춤식 전공 교육 확대
- 수학과과학과 영어 및 제2외국어 필수 교육 지향
- 수월성과 다양성을 제고하는 자율적 학생 선발제도 확보

2. 세계적 수준의 교육·연구 여건 확보

- 글로벌 헤드헌팅으로 세계 정상 수준의 교수진 확보 및 교수 대폭 증원
- 서울대 교수의 세계 우수 대학 겸임교수 및 공동교육, 세계 우수 대학 교수의 서울대 겸임교수 및 공동교육 확대
- 세계 10위권의 50개 분야 집중 육성
- 해외 동료 평가 등에 의한 교수 승진 및 정년제도 대폭 강화
- 업적평가에 따른 보수 체계의 차등화 및 석학교수 집중 지원 육성
-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연 2조원 규모의 예산 확보

3. 국제화 체제 강화

- 학생 40% 이상 국제 교류 참여
- 외국대학과의 국제 공동 강의 대폭 확대
- 외국인 학생 비율 30% 이상, 외국인 교수 900명까지 증원
- 서울대 박사학위 취득자의 외국대학 교수 및 외국 우수 기업 임원 진출 확대
- 해외 대학 분소, 분교 설치 및 글로벌 리더십 캠퍼스 조성

4. 사회와 세계에 기여하는 대학 구현

- 미래 연구소 설립
- 지역협력 클러스터, 멀티 캠퍼스의 지역협력서비스(extention service) 확대,
- 평생교육, 사회교육, 원격교육 강화
- 국내외 연구소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 세계 일류 수준의 융합연구소 설립

- 아시아 최고 거점대학으로서 한국학 및 첨단과학의 진흥 및 교육

5. 대학의 자율성 확보와 운영 체제 혁신

- 세계 정상급의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자율과 재정지원이 보장되는 법인화 추구
- 대학의 자율적 학생선발제도 추구
- 대학발전전략추진기구 설치